

# 스포츠원 **SPORTS1**

2022 06 | VOL.72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 CONTENTS



## 체조선동의 꿈, 금빛 도움닫기를 시작하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에서 우리는 금빛 도움닫기를  
시작한 체조 유망주를 마주했다. 기계체조에서  
6관왕을 차지한 신희제 선수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6관왕이 나온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SPORTS 1**

2022 06 | VOL.72

발행인 이기홍 회장

편집인 조용만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06월 17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http://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http://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06



## KSOC & SPECIAL

### 04 포토에세이

### 06 THEME TOPIC ①

쉽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스포츠클럽법' 궁금증 풀이!

### 12 THEME TOPIC ②

'모두를 위한 스포츠' 세상을 만들어 가다  
사천스포츠클럽

### 14 THEME REPORT

당연하고 마땅한, 스포츠권 찾기!  
'스포츠기본법'



## KSOC & SPORTS

- 16 **ZOOM IN ①**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돌아보며...
- 20 **ZOOM IN ②**  
전 세계 38개국 군사들의 경쟁  
광주 2022 양궁월드컵 결산
- 24 **HERO OF GENERATION**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약,  
기계체조 6관왕 신희제 선수
- 28 **SPONOMICS**  
스포츠 스타 이제 '내'가 키운다!
- 30 **TECH INSIGHT**  
중력을 거스르는 인간 새의 도약
- 34 **GLOBAL SPORTS PRISM**  
메타버스 탄 스포츠,  
지금 어떤 세상을 지나고 있을까?
- 36 **위드 스포츠7330**  
연에 매달려 물 위를 나는 즐거움, 카이트서핑  
팀 블랙카이트(Team Black Kite)
- 40 **학교야 체육하자!**  
체육을 통해 웃고 즐기는 학교를 만들다  
부산 동아고등학교

## KSOC & TREND

- 44 **NEW NORMAL & SPORTS**  
열심히 운동하면 돈이 생겨요!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
- 46 **SNS 라이브**  
건강한 일상을 여는 습관! 대한체육회 블로그 노크하기  
SPORTS FOR ALL, 체육인 인터뷰
- 48 **가볍게 스포츠**  
울퉁불퉁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공의 모양과 공기역학
- 50 **가볍게 여행**  
짜릿해, 늘 새로워!  
국내 익스트림 스포츠 명소
- 52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 54 **KSOC NEWS**

6월 23일은 '올림픽의 날'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창설일인 1894년 6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죠.

올림픽은 스포츠 정신을 통해 세계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고,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새겨 주었습니다.

<스포츠원>은 '올림픽의 날'을 맞아 스포츠를 더 가깝게 생각하고,

일상에서 체육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되새겨 봅니다.

더불어 6월 16일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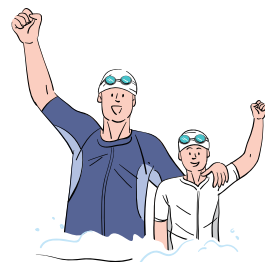
# 쉽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스포츠클럽법’** 궁금증 풀이!





글.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부 부장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스포츠클럽을 정부 제도권 아래에 모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 국민 운동 참여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스포츠클럽이 무엇인지 대충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스포츠클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현장에서는 스포츠클럽 등록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당분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원활한 클럽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도 친절하고 현실적인 유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클럽법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할 내용들을 정부, 체육회, 시설관리자 등 공급자 측면이 아닌 클럽 및 동호회 회원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본다.



#### Q 스포츠클럽은 무엇인가

A 쉽게 말하면, 운동하기 위해 모인 단체인데, 모임 자체를 뜻할 수도 있고 시설을 근거로 운영되는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다. 운동 종목은 무척 다양하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여기에서는 실내 종목만 설명한다.

운동을 하려면 사람과 장소가 필요하다. 사람은 있는데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빌려야 한다.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뒤 장소를 빌려 운동하는 모임, 즉 배드민턴 동호회나 탁구 동호회를 스포츠클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시설을 근거로 하는 스포츠센터, 체육센터 등도 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다.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센터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개별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수영하고 싶은 사람은 체육센터(수영장)에 가서 등록한 뒤 지정된 시간에 운동하고 귀가한다. 사람 간 구속력은 강하지 않다. 그냥 개인적으로 시설로 가서 돈을 내고 운동하면 된다.

개인이 소유한 곳에서 운영되는 클럽도 있다. 동네 헬스클럽, 필라테스, 요가 등이 그렇다. 장소가 개인 소유인만큼 공공 클럽이 아니라 ‘민간’ 클럽 정도로 부를 수 있겠다.

#### Q 스포츠클럽법은 무엇인가

A 정부가 각종 스포츠클럽을 국가 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대부분 공공 소유다. 결국, 스포츠클럽법도 대부분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공공시설을 이용해 운동하는 동호회, 센터 등을 정부 관리 아래 묶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스포츠클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공공’을 붙여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 어쨌든 ‘공공’ 클럽이 되면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상업용 운동 시설은 스포츠클럽법에서는 사실상 제외된다. 물론 이들도 법률상으로는 법인으로 등록하면 스포츠클럽이 될 수는 있다.



**Q 스포츠클럽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A** 정부가 법에 근거해 기존 동호회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렇듯 제도권 아래서 클럽을 관리하려면 가장 먼저 클럽 ‘등록’을 받아야 한다. 동호회가 공공클럽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공공시설을 이용해 운동하는 동시에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말이다. 이전에는 동호회 마음대로 장소를 빌려 편한 시간에 마음껏 운동할 수 있었지만, 공공클럽으로 등록하면 이 모든 걸 편리대로 할 수는 없다. 운동 날짜와 시간 등을 다른 종목, 다른 클럽과 조율해야 한다.

**Q 지금도 동호회에서 운동하는 게 편한데 굳이 공공클럽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나**

**A**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당연히 공공클럽으로 전환하면 얻는 혜택이 풍성해야 등록하는 동호회가 많아진다. 혜택이 별로 없다면 굳이 정부·지자체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공공클럽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우수선수 발굴·육성, 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가능한 더 많은 혜택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Q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변하나

A 공공시설을 이용해 운동해 온 개인은 그대로 운동하면 된다. 반면, 동호회 또는 클럽 운영자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공클럽으로 등록할지, 그냥 동호회로 남을지 말이다. 만일 공공클럽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클럽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을 마련할 것, 클럽 연간 운영 계획서를 만들 것, 대표자 및 회원 대의기구를 설치할 것,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등이다. 즉, 과거처럼 몇몇 사람이 모여 대충 운동하고 동호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클럽 운영에 대한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싫다면 공공클럽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금 동호회에서 이전처럼 운동해도 된다.

### Q 동호회든, 클럽이든, 시설 확보가 무척 중요할 것 같다

A 그렇다. 사실 마음껏 쓸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 정부·지자체 간섭을 받으면서까지 클럽으로 등록할 이유는 없다. 결국, 한정된 시설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스포츠클럽의 시설 이용에 대해 적잖은 혜택을 준다. 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시설 우선 수의계약, 시설 위탁관리 권한 등이다. 정부가 시설 사용 혜택을 다양하게 줄수록, 클럽은 큰 이득을 얻게 된다. 시설 이용 권리를 클럽에 부여하는 데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클럽에게 주지 않고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에 그대로 줄 수도 있다. 즉, 스포츠클럽이 된다고 무조건 시설 사용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Q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 시설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

A 된다. 동호회가 지금처럼 학교장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받고 대관료를 내고 쓰면 된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클럽법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을 공공클럽에 적극 개방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럽법에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시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즉, 학교가 학교 시설을 ‘공공’ 클럽에 개방할 경우, 정부·지자체가 시설 개보수 비용을 준다는 뜻이다. 동호회로부터 체육관을 쓰게 해 달라고 압박받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학교장이 클럽법을 근거로 학교 시설을 ‘공공’ 클럽에만 개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동호회는 대관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1. 오산스포츠클럽회장배 리듬체조 대회를 마친 뒤 어린 선수들과 클럽 관계자들. ©오산스포츠클럽



**Q 시설 사용을 놓고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겠다**

**A**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사실상 독점하려는 동호인, 단체가 많아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클럽 운영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협치 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체육회, 종목 단체, 교육청, 학교 등이 조화를 이룬 거버넌스(가칭 스포츠클럽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Q 그냥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지정스포츠클럽'은 무엇인가**

**A** 스포츠클럽 중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지도 수준도 높은 상위 클럽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을 만든 이유는 직업 선수를 학교가 아니라 클럽에서 키워내겠다는 의도다. 지정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 운동부와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나이·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시설 및 기구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 배치, 회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감염병 등에 대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상시 합숙 훈련 근절을 위한 노력,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필요시 기숙사 운영 등이다. 전문 선수를 육성·관리하는 최고 수준의 클럽인 만큼 갖춰야 할 조건들이 까다롭다.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적잖은 사업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Q 학교 운동부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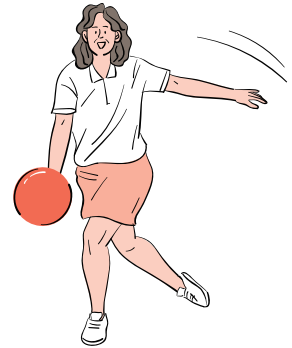
**A**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잖다. 학생 선수는 무엇보다 대회 성적이 중요하다. 학교 지도자는 학부모가 월급을 준다. 학부모가 고용할 수도 있고, 경질할 수도 있다. 그만큼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 선수 관리와 성적 향상에 '올인'해야 한다. 그러나 지정스포츠클럽 소속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정해진 시간에 학생 선수를 지도하고 대회에 팀을 데리고 나가면 끝이다. 성적이 부진하다고 경질되는 일이 없다. 상급학교 입학, 실업팀 입단 등 성과를 내야 하는 의무감도 거의 없다. 결국, 학생 선수 진학과 진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학부모가 지게 된다.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한다. 학교는 교육부가 관리한다. 즉, 클럽으로 운동하러 오는 학생 선수가 학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클럽이 제어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구조다. 학생 선수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할 경우, 자칫 운동과 학습 모두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학업에 더 소홀할 수도 있다.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될 개연성이 크다. 문체부·교육부·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3



2. 2021년 경향신문이 주최한  
공공스포츠클럽 발전방안  
토론회 장면. ©경향신문
3.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관내  
어린이집에서 방역소독작업을  
벌인 뒤 기념. ©남원거점스포츠클럽

### Q (공공)스포츠클럽이든, 지정스포츠클럽이든 나중에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나

- A 그렇다. 클럽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자격이 취소되면 이전까지 누려온 혜택이 대부분 사라진다. 세금·기금을 받아 운영해온 ‘공공’ 클럽인 만큼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자격이 취소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아온 공적인 혜택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클럽에 지원해온 세금과 기금, 사업권 등이 모두 회수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 Q 클럽법이 잘 시행된다면 어떤 청사진을 기대할 수 있나

- A 학교, 지역, 전문체육, 생활체육 등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체육·스포츠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하나로 통일돼 운영될 수 있다. 그동안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 많은 동호회나 스포츠클럽이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되면 국민 모두 스포츠 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장소를 넘어 지역민이 나이, 성별, 계층 등과 상관없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장소로 변신할 것이다. 클럽 숫자가 많아지고 운영이 선진화하면, 수준별·연령대별로 차별화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소비자’인 생활 체육인들이 증가하면, ‘공급자’인 전문 체육인들의 일거리도 늘어난다. 이런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려면 정말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스포츠클럽 성공이라는 공통 목표를 놓고 서로 양보하고 상호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답을 향해 스포츠클럽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 집단 말이다. 이게 없다면 스포츠클럽은 또 다른 관치행정으로 전락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SPORTS1**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세상을 만들어 가다 사천스포츠클럽

글. 강병용 사천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정리. 편집실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독일, 영국 등 생활체육 선진국처럼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화두로 시작된 스포츠클럽법은 국민의 스포츠 참여 확대,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스포츠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잘 정착되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스포츠원>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성공적 첫걸음을 내디딘 (사)사천스포츠클럽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 요람으로

사천스포츠클럽은 지역민 누구나 생활체육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스포츠클럽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시작해 15년간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국 200여 개 클럽 중 가장 오랜 역사이다. 2014년에는 종합형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사천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사천국민체육센터를 거점으로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댄스(에어로빅), 헬스, 발레, 요가 총 8개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 4세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6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사천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사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선수육성반이다. 2018년부터 축구·농구·탁구 종목은 초등부 선수육성반 운영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엘리트 선수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체육 꿈나무 16명에게 ‘스포츠육성장학금’을 지원했다. 스포츠육성장학금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목별로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자체리그전을 개최하는 등 스포츠클럽 스스로 성장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수 클럽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천스포츠클럽 송년의 밤’이다.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 이 행사를 통해 종목별 우수회원 및 우수직원(지도자)에 대한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작품 발표와 장기자랑 시간도 갖는다. 다만 2020~2021년도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지역공동체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스포츠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지역별 특색을 가져야 한다. 사천스포츠클럽은 스포츠를 통한 진정한 화합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회원뿐 아니라도 모든 지역민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현재 사천스포츠클럽은 회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운동회’, ‘영화데이’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진행하지 못했던 ‘2022 사천스포츠클럽 신나는 주말 가족운동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긴 침묵을 깨고 마주한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던 마음을 벗어던지고 활기찬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즐겼다. 이 밖에도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역체육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민들의 스포츠복지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의 활동가와 참여자들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활력 창출의 기획자이자, 지역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자이며, 궁극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내는 촉진자이다. 사천스포츠클럽은 더 많은 사람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단순히 운동하는 장소를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SPORTS1**

### 사천스포츠클럽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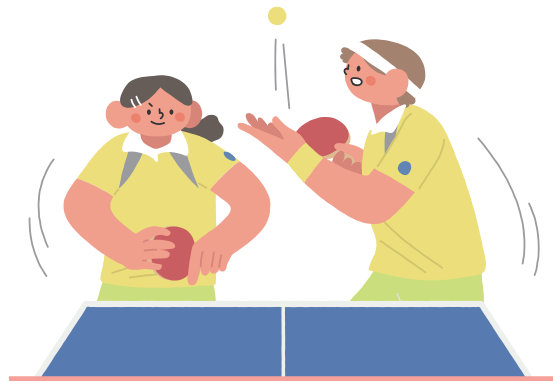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소외계층(단체) 방문 재능 기부, 운동용품 기부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국민체력100 사업 사천체력인증센터 운영(무료 체력 측정 및 증진교실 운영)
- 보건소 운동프로그램 영상 제작 지원
- 지역농가 농산물 자원봉사(키위 따기, 감 따기)

글. 편집실

스포츠기본법이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써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는 스포츠기본법은 기존의 스포츠 관련법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 스포츠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 당연하고 마땅한, 스포츠권 찾기! '스포츠기본법'



### 스포츠를 '권리'로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밑거름으로 스포츠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의 스포츠 관련법은 스포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

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시민 주체의 관점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자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스포츠기본법이 기존의 스포츠 관련법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1조 법의 목적 항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스포츠(활동)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그리고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칭하고 있다.

스포츠가 권리가 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겼

다. 그동안 스포츠 활동은 개인적 취향에 따른 선택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스포츠권 개념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했다.

2조는 스포츠를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한 방침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스포츠 활동 기회는 국민 모두에게 균등해야 하며, 제약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모든 스포츠 관련법의 근거를 마련하다

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관련법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다. 스포츠기본법은 기존의 스포츠 관련법들을 일관된 체계로 다듬고,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그 근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스포츠기본법을 토대로 스포츠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스포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프로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스포츠시설, 스포츠인력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스포츠윤리, 스포츠안전관리, 스포츠환경보호, 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스포츠국제교류 및 협력, 스포츠남북교류 및 협력, 스포츠기부문화 조성,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주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 하나하나가 각종 스포츠 관련법의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다.



### 스포츠기본법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정부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스포츠기본법이 추구하는 스포츠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14개 부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조정·심의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스포츠기본법의 정신에 정직하고 충실해야 하며, 스포츠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의 사명에 맞는 응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아이디어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스포츠권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정책 심의·조정 기관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행정 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나 스포츠부(혹은 스포츠청)를 신설하는 방안도 체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SPORTS1*







##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돌아보며...

글. 편집실

우리나라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5월 31일 막을 내렸다. 이번 소년체전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동안 갈고닦았던 실력을 선보일 기회에 목말라 있던 유·청소년들에게는 더없이 설레고 반가운 무대였다.





## 완연한 모습 되찾은 유·청소년 최고의 스포츠 축제

우리나라 유·청소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972년부터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그동안 우수한 학생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한 산실로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 소년체전은 '꿈꾸는 경상북도! 희망찬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7,886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36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특히 66건의 신기록을 쏟아내며 우리나라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

대한체육회는 소년체전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유관중 대회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선수단과 일반 관중을 철저히 구분해 관리했다. 또한 종목별 경기장 입구마다 출입자 발열체크, 개최지·대한체육회·시도선수단·종목단체 간 실시간 코로나19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해 확진자 '제로'를 유지하는 등 책임 방역을 시행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개·폐회식 미 개최, 종목별 경기장 하루 전 개방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시도별 메달 순위를 집계하지 않고 종목별 개인 시상식만 진행해 참가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14개 종목별 참가선수단 및 관중을 대상으로 종목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페스티벌' 행사도 진행했다. 승부조작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승부조작 방지 캠페인' 등의 행사도 병행하며 참가자에게 호평을 받았다.

한편, 올해 신설된 꿈나무상(부별 한국기록 및 다관왕 등) 시상식은 추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신기록·다관왕 기록의 행진 다음 소년체전을 위한 약속!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인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치러졌지만 우리나라 스포츠 꿈나무들의 열정은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스포츠 환경을 극복하고 마음껏 대회를 즐기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소년체전의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올해 소년체전 경기는 크게 13세 이하부와 16세 이하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3세 이하부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 골프, 바둑, 에어로빅 21개 종목에서 겨루었다. 16세 이하부는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사격, 하키, 펜싱, 근대3종, 카누, 조정, 볼링, 요트, 철인3종, 승마 15개 종목이 추가된 36개 종목에서 겨루었다.





다수의 신기록 행진은 이번 소년체전의 가장 큰 볼거리이자 성과였다. 부별신기록 9건, 부별타이 기록 1건, 대회신기록 54건, 대회타이기록 2건 등 모두 66건의 신기록이 쏟아졌다. 그중 부별신기록은 모두 16세 이하부(육상 트랙·필드 각 1개, 자전거 3개, 역도 1개, 사격 1개)에서 나왔다. 이밖에 롤러에서 무려 33개의 대회신기록이 나왔으며, 그 뒤를 이어 수영에서 17개의 대회신기록 나왔다.

최다관왕의 주인공은 13세 이하부 남자 기계체조에 출전한 신희제(서울대동초)가 차지했는데 단체전, 개인종합, 링, 안마, 마루운동, 철봉에서 모두 우승해 6관왕에 올랐다. 이외에도 4관왕 10명, 3관왕 30명, 2관왕 58명 등 다관왕 99명이 탄생했다. 또한, 36개 종목에서 105명의 최우수선수(MVP)가 선정됐는데, 이는 이전 대회 대비 다관왕 부문 15%, 신기록 부문 100% 이상 증가한 성적이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23년 울산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년체전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라는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체육 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소년체전은 지속되어야 하며,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 더 발전시켜야 한다. **SPORTS1**





## 전 세계 38개국 궁사들의 경쟁

광주 2022 양궁월드컵 결산



글. 편집실 자료 제공. 광주광역시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2022 양궁월드컵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양궁월드컵은 하계올림픽,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양궁계의 3대 이벤트 중 하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국내에서 처음 열린 국제스포츠 대회라는 점, 각 부문 세계랭킹 1위 등 정상급 선수가 모두 참가한다는 점 등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 38개국 26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6일간 펼친 금빛 열전이 남긴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 본다.





## #1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 대회, 안전하고 우수한 방역체계 검증

2020년 1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년여 간 국내·국제스포츠 대회는 대부분 열리지 못했다. 다행히 2022년 5월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조치로 양궁월드컵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선수단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주최기관인 광주광역시시는 각국 선수단이 도착한 직후 광주시청 야외선별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통보해 선수들의 현지 적응훈련과 경기 진행에 차질 없도록 진행했다. 또 대회기간 중 자가검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지급하고, 대회 종료 후 귀국에 필요한 PCR 검사를 지원했다.

## #2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의 세계 최고 실력 재확인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맹위를 떨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2022 양궁월드컵에서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재확인했다. 양궁 종목은 활의 종류에 따라 컴파운드와 리커브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컴파운드와 리커브별로 각 남녀 개인·남녀 단체·혼성 등 10개 종목에서 금 6, 은 2, 동 1의 총 9개 메달을 획득해 종합성적 1위를 달성했다.

먼저 컴파운드는 여자 개인 금메달(김윤희), 여자 단체 금메달(김윤희, 오유현, 송윤수), 남자 단체 동메달(김종호, 양재원, 최용희)을 획득했다. 리커브는 여자 개인에서 금메달 1개(최미선), 은메달 1개(이가현)를, 남자 개인은 금메달 1개(김우진), 은메달 1개(이우석)를 따냈다. 여자 단체전은 금메달 1개(안산, 최미선, 이가현), 남자 단체전은 금메달 1개(김제덕, 김우진, 이우석)를 획득했다.

## #3 국제경기대회 운영 실력 발휘

주최기관인 광주광역시시는 국제규격을 갖춘 ‘광주국제양궁장’이라는 훌륭한 시설 인프라와 두 차례 메이저 대회를 치르면서 습득한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경험을 이번 월드컵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양궁월드컵만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한양궁협회·광주시양궁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경기장 시설정비, 경기 운영, 수송·숙박·방역·자원봉사·방송중계·대회 지원협력 사업 등 총 7개 분야 66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과 현장 리허설을 거치면서 대회 준비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2022 양궁월드컵에서 최초로 시행한 ‘K-스포츠 과학 컨디셔닝’ 서비스는 해외 참가선수들에게 여타 국제경기대회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탐달린 세계양궁연맹 사무총장은 “예산부터 결승까지 단 1%의 허점도 없는 완벽한 대회였다”라고 평가했다. *SPORTS1*



# 가장 순수한 몸짓의 올림픽 종목, 기계체조

## 1896 아테네 올림픽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근육을 통제하며,  
아름다운 몸짓으로 승부를 겨루는 기계체조. 그 때문에 가장  
순수한 스포츠로도 불린다. 이 원초적 아름다움을 품은 종목이 올림픽에  
데뷔한 건 1896년 근대올림픽의 첫 시작을 알린 아테네올림픽이다.  
기계체조는 안마, 링, 도마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계체조라 부른다.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마루 종목 역시 탄성 매트 위에서  
연기를 펼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높이 점프하고,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다.





## 올림픽 기계체조 종목



### 남자 부문

마루·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 여자 부문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약,

소년체전 기계체조 6관왕

## 신희제 선수

글·편집실

새로운 기계체조 유망주가 등장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계체조에서 6관왕을 차지한 신희제 선수(서울대동초 6학년)가 주인공이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6관왕이 나온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형을 따라 시작했다는 신희제 선수는 기계체조가 ‘아름다운 운동’이라고 말한다. 훈련이 힘들 때마다 금메달 따는 상상을 한다는 신희제 선수를 만나보았다.

### 신체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운동



안마 종목

“친구들이 팬이라면서 사인해 달라고 해서 기분 좋았어요.”

기계체조 6관왕이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신희제 선수가 수줍은 듯이 웃었다. 아버지가 메달 수만큼 용돈도 올려주셨다고 자랑할 때는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엿보이기도 했지만 기계체조 이야기로 돌아가면 표정부터 달라진다.

“기계체조는 굉장히 어렵지만 아름다운 운동이에요”라며 기계체조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기계체조는 근력을 바탕으로 6가지 종목에 대해 다양한 능력을 고루 발달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운동이다. 조금이라도 신체 균형이 흔들리면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없다. 마루운동은 순발력과 하체 근력이 좋아야 하고 안마와 철봉은 민첩성이 중요하고, 링은 상체 근력이 필요하다. 신체를 고루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의지는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신희제 선수는 한계에 도전하는 신체 능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기계체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는 질문에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진짜 재미있더라고요”라며 배시시 웃는 신희제 선수. 매일 4~5시간씩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도 기계체조 시작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이유다.

“훈련이 힘들 때는 체육관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기 마련인데 희제는 저 멀리서부터 막 뛰어 들어와요. 가방을 한쪽에 던져두고는 체육관을 놀이터 마냥 뛰어다녀요. 기계체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친구예요.”

4년째 신희제 선수를 가르치는 양광진 코치의 말이다.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라 대견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기계체조 잘하게 생겼다”

신희제 선수는 형을 따라 기계체조를 시작했다. 한 살 터울인 형이 먼저 시작했는데 재미있어 보였다고, 고모가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데다 사촌누나도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했던 터라 ‘운동선수 집안’이라는 내력도 한몫했다.

“2018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체격만 봐도 잘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회제를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양광진 코치는 신희제 선수의 첫인상에 대해 ‘기계체조 잘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회상한다. 다부진 체격인데다 작은 체구가 무색할 정도로 힘이 좋았기 때문이다. 중력을 이기려면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기계체조를 시작하는 선수들은 힘이 좋으면 유연성이 부족하고, 유연성이 좋으면 힘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유연성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지만 힘은 타고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도 좋아지긴 하지만 타고난 힘이 있어야 훈련 시너지가 높아지거든요. 기계체조는 버티는 힘이 아주 중요한데 회제의 경우 타고난 힘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운동 시작 1년 만에 전국 규모 대회인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조 대회’에 출전해 단숨에 개인종합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선수로서 기량이 빠르게 성장했다.

“그때 처음 시합에 나갔는데 다른 학교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서로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선수로서 라이벌 의식도 갖게 되었어요.”



평행봉 종목



## 발가락 탈골, 코로나19 확진까지

신희제 선수는 올해 3년 만에 개최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6개 종목 중 마루, 안마, 링, 철봉 등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고 개인종합, 단체종합에서도 1위를 차지해 6관왕에 올랐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6관왕이 나온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처음 출전한 소년체전에서 6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니 혹자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준비 과정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훈련 과정에서 새끼발가락이 빠지는 부상을 입었다. 빠진 발가락이 쉽사리 제자리를 찾지 못해 수술까지 해야 했다. 11월 대회를 겨우 3주 남겨놓고 발생한 부상이라 경기를 포기할 위기였지만 신희제 선수는 출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려면 실전 경험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루운동이 주종목이지만 발가락 부상 때문에 뛰는 종목은 무리였어요. 안마나 링처럼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종목에만 출전해서 실전 감각을 키워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금메달  
따는 상상을 해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출전하는 데 의미를 두자고 마음을 다독이긴 했지만 주종목인 마루운동에서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웠다. 한창 시합을 뛰며 출전 경험을 쌓았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가 창궐한 것도 어린 선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체육관에서 대면훈련을 하지 못하는 기간도 길어졌다. 그럴 때마다 줌 화상으로 코치 선생님과 만나서 물구나무서기, 팔굽혀펴기, 복근운동 등을 하며 몸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올해 3월, 대회 1주일을 남겨놓고 코로나19에 걸리고 말았다. 결국 출전을 포기했다. 지난해 발가락 부상 이후 독하게 재활을 마치고 체력을 끌어올리며 훈련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루하루 다가오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도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 기계체조의 특성상 이틀 이상 훈련 없이 쉬면 몸의 감각이 떨어져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상, 코로나19 확진 등을 겪느라 준비 기간이 턱 없이 부족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7-8개월은 걸리지만 4개월 남짓밖에 준비를 못했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훈련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지만 신희제 선수는 훈련을 묵묵히 이어나갔다.

## 눈물을 흘리면서도 될 때까지

“체조는 단기간에 실력이 확 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봐야 합니다. 꾸준히 훈련해서 중학교까지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때부터 실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신희제 선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양광진 코치는 신희제 선수에 대해 ‘나이에 비해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선수’라고 평가한다. 근력운동 연습량을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안 되는 동작은 될 때까지 해낸 후에야 비로소 기구에서 내려온다고. 어떤 날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부족한 연습량을 채우더라며 근성은 성인 선수 못지않다고 혀를 내두른다. 이런 신희제 선수가 가장 닮고 싶은 기계체조 선수는 국가대표 류성현 선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 마루운동을 엄청 잘해요. 마루에서 날아다니고 착지 자세도 아주 멋져서 꼭 닮고 싶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금메달 따는 상상을 해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마루에서 힘차게 내달리다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며 공중제비를 하는 신희제 선수. 구경꾼들은 하늘을 나는 듯한 모습에 ‘6관왕 실력 제대로 나온다’며 감탄을 터트리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이다. 수없이 다시 날아오르며 신체의 한계에 도전한다. **SPORTS**

도마 종목



# 스포츠 스타 이제 ‘내’가 키운다!

글. 편집실

아이돌이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되었던 ‘팬’이라는 용어가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뉴 노멀 시대의 트렌드이자 생존법칙으로까지 불린다. 우리 곁에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이 있다. 그들의 문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또 스포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 소비자에서 파트너로, 팬 문화의 변화

‘팬(Fan)’이라는 말은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광신도(Fanatic, 열성 신도)’를 줄여 부르던 이 말은 100년 뒤 스포츠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바로 미국 기자들이 야구 관중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적인 사람을 뜻하는 팬과 영지나 나라를 뜻하는 접미사 ‘덤(dom)’을 합성한 신조어 ‘팬덤(Fandom)’은 어떤 대상에 몰입해 그 속에 빠져드는 무리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을 이른다.

팬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상도 확대되고 있는데 과거 팬덤이라는 단어가 주로 인기 스타의 팬들을 나타냈다면, 최근에는 기업·브랜드 등에 팬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특정 집단의 향유 문화로 여겨졌던 팬덤은 다시 미디어의 발달과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공동체, 팬슈머(Fansumer) 등의 형태로 발전했다. 특히 '팬슈머'는 한 대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아하는 대상의 성장과 홍보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간섭과 비판을 마다하지 않는다.

팬슈머의 특징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시청자, 즉 팬들을 새로운 아이돌 제작에 참여시킴으로써 더 끈끈하고 높은 충성도를 확보한다. 팬들 역시 문화 수용자의 위치를 넘어 제작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더 높은 만족감을 얻는다.

이렇듯 팬슈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다. 'MZ세대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콘텐츠, 상품 등에 있어서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비슷한 가치관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 연대해 구단·소속사 또는 기업에 요구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고, 마케팅 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나 상품에 대해서는 더욱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나 상품은 외면한다. 때문에 산업 관계자는 팬들의 목소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 스포츠계 팬슈머, 팬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할 때

최근 스포츠 분야도 팬슈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인 'SSG 랜더스(전 SK 와이번스)'는 팬의 마음, 생각,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구단의 다양한 마케팅·홍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2020년 팬 서포터즈인 '팬런트'를 모집했다. 그리고 팬런트들을 마케팅·이벤트 기획, F&B 기획·평가, 상품 디자인 기획, 영상 기획·제작, 홍보 기획 등의 부문에 참여시켰다. 스타가 직접 작성하는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송하고, 팬들은 1대1 채팅 형태로 메시지에 답장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디어유'는 올해 1월부터 스포츠 스타 전용 프라이빗 메시지 앱인 '버블 포 스포츠(bubble for SPORTS)'를 신규 오픈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스포츠유망주 홍보캠페인 '밀어주자뉴스타'를 운영했다. 밀어주자뉴스타는 수영, 빙상, 컬링, 테니스 등 미

래의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스포츠 유망주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유망주들을 후원해 줄 국내 기업과의 매칭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연결시켜 주고자 진행한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밀어주자뉴스타 챌린지'도 진행했다. 뉴스타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응원하는 뉴스타를 선택하고, 해당 유망주와 어울리는 후원 기업 또는 브랜드를 선택한 뒤 인증샷을 찍어 지정 해시태그(#밀어주자뉴스타)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해당 챌린지는 선수의 성장과 발전에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만족도와 관심을 이끌 어냈다.

팬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강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우리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팬들의 수다에 더 귀기울이고, 참여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지 스포츠계의 모든 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SPORTS1**







# 중력을 거스르는 인간 새의 도약

## ‘높이뛰기’의 모든 것

글. 편집실

높이뛰기는 육상 경기 종목 중 하나로, 양쪽에 설치된 지주대에 가로로 설치되어 있는 바(Bar)를 뛰어넘는 종목이다.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맨몸으로 중력과 싸우며 더 높이 뛰어오르는 인간 새들의 도전, 높이뛰기에 대해 알아보자.

# #1

## 높이뛰기의 역사와 경기 규칙

근대 올림픽의 표어는 '더 빨리(Citius), 더 높이(Altius), 더 힘차게(Fortius)'이다. 이 가운데 '더 높이'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종목이 높이뛰기다. 도움닫기, 도약, 공중 동작을 통해 바를 뛰어넘는데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바를 넘을 정도만 도약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며, 처음 경기에 등장한 건 1840년 영국육상선수권대회이다. 이후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여자 경기는 1928년 암스테르담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장대가 떨어진다거나 장대 밑으로 지나가는 등 3회 연속 실패하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장대에 몸이 닿아 흔들리더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으로 판정한다.

점프 시도 시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거나 제한 시간을 넘겨도 실패다. 제한 시간은 남은 사람이 4명 이상일 때 1분, 2~3명일 때 1분

30초, 1명일 때 3분이 주어진다.

기록이 동일한 경우는 전체 경기에서 도약을 시도한 횟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우승한다.

### 높이뛰기 무효시기가 되는 경우

높이뛰기는 같은 높이에서 3회의 무효시기가 나오면 다음 높이에 도전할 수 없다. 어떤 경우 무효시기가 될까?

- 바를 떨어뜨리는 경우
- 도약(점프) 시도 시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
- 선수가 바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
- 제한 시간을 넘길 경우

# #2

## 배가 하늘로 향하다, 배면뛰기

높이뛰기의 역사는 196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1968년 개최된 멕시코올림픽에서 높이뛰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새로운 도약법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멕시코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높이뛰기 선수들은 양 다리를 하나씩 교차해서 바를 뛰어넘는 '가위뛰기'와 옆드린 자세로 몸을 굴리며 바를 넘는 '벨리롤오버(Belly roll over)'라는 도약법을 사용해왔다. 벨리롤오버는 등이 하늘을 향한다고 해서 '등면뛰기'라고도 불렸다. 모든 높이뛰기 선수가 이 두 가지 기술을 정석으로 여기며 연습해왔다.

그런데 1968년의 멕시코올림픽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도약법이 등장했다. 미국의 '딕 포스베리(Dick Fosbury)'라는 선수는 이

전까지의 주된 자세였던 가위뛰기와 등면뛰기와는 달리,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자세를 선보였다. 높이뛰기에서 등 쪽으로 누운 채 막대를 넘는 배면뛰기는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반전이었다.

사실 딕 포스베리는 그리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다리 힘이 강했지만 스피드와 순발력이 부족했다. 선수를 그만 뒤야 할지 고민할 정도.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체조 종목인 도마 경기를 보다가 영감을 얻었고, 몸을 공중에서 거의 드러눕는 듯한 자세로 바를 넘는 멕시코올림픽에서 2m 24cm의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도약법은 그의 이름을 따 '포스베리 플롭

(Fosbury Flop)'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배면뛰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약법은 높이뛰기 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1985년에 러시아 선수 포바루친이 배면뛰기로 2m 40cm의 신기록을 수립한 뒤부터는 현재까지 거의 모든 선수가 배면뛰기를 통해 높이뛰기에 도전하고 있다. 배면뛰기 자세가 특별히 유리한 이유가 있을까? 배면뛰기 자세는 등, 허리 및 다리를 뒤로 젖히면서 만들어진 역 U자의 빈 공간에 무게중심이 생기게 되어 실제 신체는 이보다 10cm 이상 높은 곳에서 바를 넘을 수 있다.

### 높이뛰기 기록의 역사

1895년 가위뛰기 1m 97cm 마이클 스위니	1912년 등면뛰기 2m 첫 돌파. 조지 호라인
1968년 배면뛰기 2m 24cm 딕 포스베리	1985년 배면뛰기 2m 40cm 포바루친

## #3

### 우리나라 높이뛰기의 역사

우리나라의 높이뛰기 역사도 깊다. 한국 근대육상의 시초로 여겨지는 개화기 학교 화류회(花柳會)에서 달리기·던지기·멀리뛰기 등과 더불어 공식 경기로 치러졌다. 화류회는 지금의 운동회 격인데 정부 대신과 외교관들도 관람하는 대회였다. 1896년 5월 관립 영어학교가 첫 선을 보인 뒤 일제가 조선인 운동회를 금지한 1910년까지 각 학교에는 연합 운동회 등이 성행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신기록은 1997년 세계선수권에서 이진택 선수가 기록한 2m 34cm였다. 이 기록은 무려 24년간 깨지지 않았다. 이후 우상혁 선수가 2021년 치러진 2020 도쿄올림픽 높이뛰기 결승에서 2m 35cm를 기록하며 24년 만에 한국 높이뛰기 신기록을 경신하며 4위에 올랐다.

그 후 2022년 우상혁 선수는 다시 한번 높이뛰기 역사의 기록을 새로 썼다.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 대회에서 1cm 더 높이 날아 2m 36cm를 넘으며 다시 한번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우상혁 선수는 한 달여 뒤인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12명 선수 중 유일하게 2m 34cm를 뛰어 금메달을 걸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2년 터

키 이스탄불 대회 이연경(허들 여자 60m) 선수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순위는 199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남자 400m에서 손주일이 달성한 5위다. 우상혁은 한국 선수로는 10년 만에 나선 대회에서 한국 육상 트랙과 필드 경기 역사상 최초로 세계 육상 메이저 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SPORTS1**

### 우리나라 높이뛰기 신기록의 역사

1997년	2m 34cm	이진택 선수
2021년	2m 35cm	우상혁 선수
2022년	2m 36cm	우상혁 선수





## 메타버스 탄 스포츠, 지금 어떤 세상을 지나고 있을까?

글. 편집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중 메타버스는 단연 뜨거운 감자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가상세계', '디지털 세상의 놀이터' 등으로 불리며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다.

그중 스포츠는 메타버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으로 꼽힌다.

## | 스포츠 산업, 메타버스에 탑승하다 |

현실 세계와 동일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는 전 세계 경제·산업·문화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들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신규 사업 모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최근 스포츠 분야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스포츠를 메타버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으로 꼽는다. 왜일까? 스포츠 산업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스포츠는 팬과 이들이 지지하는 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업이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 관람권을 구매하고, 소속 선수들의 기념품 등을 구입하며 팀을 지원한다. 특히 프로 스포츠 시즌이 시작되면 각 팀 팬들의 응원과 서로에 대한 견제가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한다. 더 일찍 팬 문화가 정착된 외국의 경우는 팬의 역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많은 구단이 충성도 높은 팬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한다. 충성도 높은 팬의 보유가 곧 경쟁력인 스포츠 산업에서 메타버스는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스포츠는 메타버스와 연결이 있는 'NFT(Non-Fungible Token)'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 팬들의 열성적인 구매 덕에 NFT 판매도 수월해지는 것이다. 미국 프로 농구 NBA는 경기 명장면을 담은 NFT를 판매하고 있는데, 팬들은 'NBA 탑 샷(Top Shot)'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해당 NFT를 구매할 수 있다. NFT 데이터 집계 플랫폼 크립토슬램(Cryptoslam)에 따르면 NBA 탑 샷의 NFT 판매량은 올해 1월, 30일 만에 70% 이상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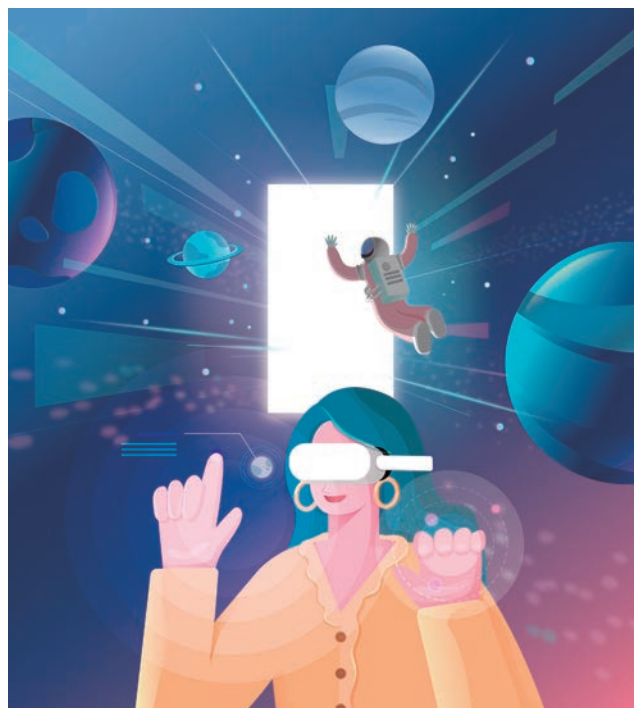
대한체육회 역시 올해 초 NFT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가대표 선수단 및 스포츠 자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생성해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수익을 창출해 체육 진흥 등 대한체육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팀 코리아'를 활용했다. 남자 쇼트트랙 박윤기, 여자 쇼트트랙 김아랑, 여자 컬링 대표팀 김선영 등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팀 코리아 국가대표 선수 60명의 훈련 과정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서 프로필로 활용 가능한 PFP NFT와 디지털 3D 큐브 카드, 디지털 피규어, 디지털 아트 등을 제공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 | 거대한 팬 참여도구가 된 메타버스 |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공간은 거대한 팬 참여 도구가 된다. 먼저 메타버스 경기 관람은, 제한된 인원 수용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현장 관람이 어려웠던 팬들에게 제약 없는 현장 관람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초, 이탈리아 프로 축구 리그 세리에 A는 메타버스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축구 팬 1만 명을 대상으로 AC 밀란과 피오렌티나의 리그 경기를 생중계했다. 메타버스 공간에 입장한 팬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TV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다른 팬들과 교류했다. 메타버스 관람을 시도하고 있는 곳은 더 있다. 영국 프로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의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소니(Sony)와의 계약을 통해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경기장을 짓고 있다.

이 밖에도 팬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실물과 비슷한 스타의 아바타는 팬들에게 스타와 소통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듯 세계의 많은 스포츠 업계가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있다. 해외 축구팀의 경기를 '방구석 1열'로 직관할 수 있는 세상이 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스포츠 산업 역시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스포츠 산업의 메타버스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PORTS1**





# 연에 매달려 물 위를 나는 즐거움, 카이트서핑

## 팀 블랙카이트(Team Black Kite)

글. 편집실

파도 없이도 파도타기를 할 수 있는 서핑이 있다. 서핑과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한 카이트서핑이다.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이 레저스포츠는 1990년대 초 유럽과 하와이 등지에서 파도가 일지 않는 날에도 서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카이트서핑 동호회 '팀 블랙카이트'와 함께 이 낯선 레저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보자.



## Q 본인 소개와 활동 중인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카이트서핑 경력 11년 차인 문진영입니다. 현재 카이트서핑 동호회 '팀 블랙카이트' 회장을 맡고 있어요. 워낙 운동을 좋아해 다양한 레저스포츠에 도전했었는데, 카이트서핑을 타는 순간 '아,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팀 블랙카이트(Team Black Kite)'는 주로 경기도 화성의 화성호와 충청남도 당진 석문방조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네이버 카페에서도 활동 중이고요. 동호회 이름은 '솔개'와 '검은 연'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블랙카이트(Black Kite)'에서 따왔습니다. 카이트서핑이 가진 역동성 및 자유로움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카이트서핑은 바람이 있어야 할 수 있기에 우리 동호회는 항상 바람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바람이 많은데요. 기온이 낮아 운동을 즐기기에 어려워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판랑 등 해외 투어도 자주 하죠. 코로나19로 해외 활동이 어려웠을 때는 얼음 위나 땅 위에서 탈 수 있는 아이스 카이트나 랜드 카이트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 Q 동호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우리 동호회는 아직 생소한 카이트서핑을 알리고, 그 매력을 좀 더 많은 이와 나누기 위해 2013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카페로 옮겨서 활동한 것은 2015년이구요. 처음 동호회를 방문한 이들은 대부분 해외의 카이트서핑 영상들을 보고 호기심에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강습비와 장비 가격이 만만치 않아 쉽게 시작하지는 못하죠. 그래도 그 매력에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지지 못합니다.

## Q 운동 혹은 생활체육으로써 카이트서핑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카이트서핑은 바람이 부는 날 큰 연을 띄워 그 힘으로 보드를 탑니다. 자연의 힘에 의지해야 하는 스포츠죠. 그만큼 카이트서핑을 즐기는 동안에는 자연과 하나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즐길 수 없다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회원들 사이에서는 농담 삼아 "바람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그래서 바람 예보가 있는 날이면 미리 연습 장소에 가서 카이트(연)를 세팅하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기에 그 시간조차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 Q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카이트서핑은 전신 운동이므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호회 활동으로 얻는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금세 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또 회원들 중에는 개인 사업자가 많은데 사업에 대한 조언이나 팁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 Q 카이트서핑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서핑 포인트가 있다면

카이트서핑 초보자라면 저희가 주로 연습하고 있는 석문방조제와 화성호를 추천합니다. 초보자는 카이트가 자주 떨어지고, 걷는 일이 많은데 발이 닿지 않는 수심이라면 연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 드린 포인트는 수심이 낮고, 바람도 잘 불어 초보자가 연습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 Q 팀 블랙카이트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 동호회는 20명 내외의 회원이 활동 중인데요. 소규모이다 보니 한 분 한 분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카이트서핑을 즐길 수 없는 날에는 캠핑이나 낚시를 즐기며 친목을 다지죠.

동호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편안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즐겁게 카이트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카이트서핑 관련 대회나 국내외 투어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원들이 함께 캠핑이나 낚시, 스노우보드를 즐기고 있죠. 더 많은 활동을 찾아 동호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싶습니다.

## Q 미래의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카이트서핑이 어려운 스포츠만큼 관심은 있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도전하세요! 동호회 안에서도 도와주실 분이 많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팀 블랙카이트'는 카이트서핑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주세요. **SPORTS1**



### '팀 블랙카이트 (TEAM BLACK KITE)'를 소개합니다

#### 카페 및 온라인 활동

<https://cafe.naver.com/teamblackkite>

#### 동호회 조직일

2013년(2015년 네이버 카페 활동 시작)

#### 동호인 수

20명 내외

#### 모임 주기

(4월~10월 말) 시즌 스타트와 시즌 오프 정기 모임

(비정기 모임) 바람이 불 때

#### 대회 혹은 연례활동

각종 카이트서핑 대회 참가, 수상 경력 다수







# 체육을 통해 웃고 즐기는 학교를 만들다

## 부산 동아고등학교

글. 편집실

동아고등학교는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1951년 개교 이래 자유·진리·정의를 실천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공지능(AI)융합 중점학교 등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체육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체육인을 양성하고 있다.



### Q 동아고등학교와 선생님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1951년 개교 이후 다양한 교육 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을 위한 선도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형준입니다.

### Q 체육교육 특성화과정은 언제부터 진행했나요? 그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 오셨나요

2010년 교육부가 지정한 체육중점학교로 선정되어 2011학년도부터 체육교육 특성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체육 관련 진로·진학지도를 공교육 현장에서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에 많은 공을 들였죠. 현재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진로·진학지도와 연계한 특별 과정, 자격증 취득 연수 등 학생 중심의 참여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체육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는 그동안 10여 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며 체육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때문에 일반고임에도 학교체육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죠.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에 선정된 2010년에도 3개의 운동부(농구부, 축구부, 씨름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육과정에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체육 인재를 육성해 보자는 학교 분위기와 전 교직원의 학교체육활성화 운영 의지가 맞물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Q 학년별 학교체육 특성화 교육 과정과 학생 수, 지도하는 교사 수, 교과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체육교육과정은 학년별 1학급씩 총 3학급,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의 체육관, 인조 잔디 구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측정 장비와 용품 등을 구비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 특화된 교육을 통해 체육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먼저 1학년은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전공실기 기초 과목을 교과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학년은 육상운동, 스포츠 경기체력, 단체운동, 체육탐구를, 3학년은 체육지도법, 체육전공실기 심화 및 응용, 스포츠 경기 실습 등의 교과를 진행합니다.

체육교사는 총 6명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하며 체육 관련 진로·진학을 돕고 있습니다.





### Q 체육중점수업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졸업생과 연계한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보디빌딩 국가대표,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체육 교사 등 다양한 직군에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방문해 후배들을 위해 체육진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강이 끝난 뒤에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죠. 즉 체육교육과정을 통해 선배들은 성장하는 후배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후배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 Q 동아고등학교가 생각하는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체육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하고, 친구들과 땀 흘리며 운동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육강습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을 개최하며 체육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며 기쁨과 보람을 얻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Q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체육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어떤 종목이나 전공을 선택해도 정확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며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소소한 고민이나 의견도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Q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 제자가 떠오르네요. 보디빌딩을 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전국대회 1등,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냈죠. 졸업 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며 세계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순간들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에서 대견함과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 종목에 참가해 첫 승리를 거두었던 때도 생생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Q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체육인으로서 꿈과 끼를 학교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더불어 모든 학생이 체육 활동을 하며 큰 소리로 웃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늘 그래왔듯이 학생 중심의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환경개선 요구에 발맞춰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체육 인재들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학교를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PORTS**



동아고등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

교과	1-1	1-2	2-1	2-2	3-1	3-2
체육과 진로 탐구	6					
체육전공실기 기초		6				
육상운동			5			
스포츠 경기체력			5			
단체운동				5		
체육탐구				5		
체육지도법					3	
체육전공실기 심화					6	
체육전공실기 응용						7
스포츠 경기 실습						7



# 열심히 운동하면 돈이 생겨요!

##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

글. 편집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실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보상)을 본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MZ세대를 주축으로 좀 더 확실하고 재미있게 보상 받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토큰 이코노미’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게임 또는 바람직한 습관을 들이면서 돈을 버는 방법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토큰 이코노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토큰 이코노미’가 뭘까?

블록체인 산업의 키워드는 항상 빠르게 변해왔다. 최근에 가장 주목 받는 키워드는 ‘토큰 이코노미’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토큰으로 다양한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에 다양한 결제 수단 플랫폼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아직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토큰 이코노미는 행동심리학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어떤 행동을 이끌기 위해 ‘토큰’을 보상으로 주고, 그 토큰은 유·무형의 가치로 교환됨으로서 그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심부름을 하면 부모는 그에 맞는 토큰을 제공하고, 아이는 부모에게 받은 토큰으로 간식이나 장난감(유형의 보상)을 사거나,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 시간(무형의 보상)을 얻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의미로는 “공동체에 바람직한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무형 가치와 교환이 가능한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이란 마일리지, 쿠폰, 가상화폐 등이 포함된다.

토큰 이코노미는 특정한 행동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참여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가입자 유치가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큰 이코노미가 활성화되려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 해당 토큰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토큰을 얻는 것이 수월해야 한다. 가치의 크기와 상관없이 토큰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부터 난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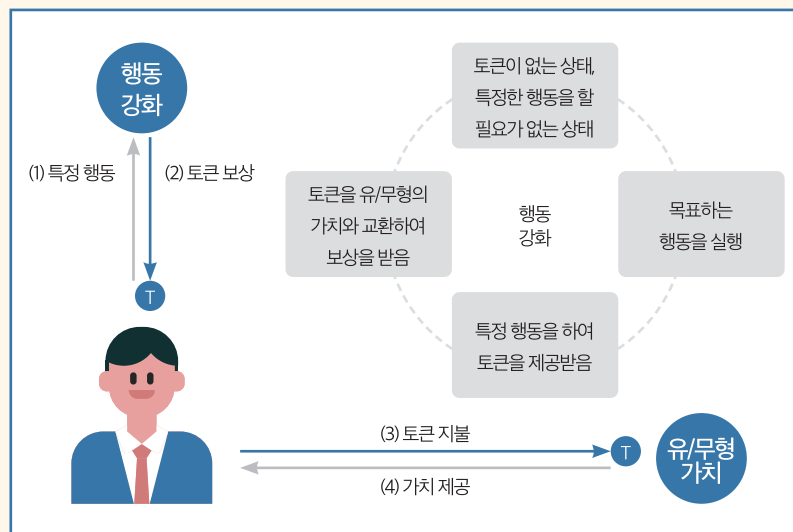
## 올바른 습관 기르고, 열심히 운동하며 ‘용돈 줍줍’

‘운동하면 돈이 쌓이는 신개념 라이딩’. 이는 한 트레이닝 서비스를 홍보하는 문구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열심히 운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다. 과거 건강 관련 기업들은 운동 서비스를 홍보하려면 ‘몸짱’ 남녀 모델을 앞세워 열심히 운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동기를 부여했다. 최근엔 ‘운동하면 돈을 준다’는 식의 금전적 보상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거나 운동을 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토큰 이코노미 개념도



### 습관형성 앱 ‘챌린저스’

‘챌린저스’는 2012년부터 8년간 자기계발 커뮤니티를 운영한 노하우에서 시작된 서비스다. 무언가를 꾸준히 실천하려면 의지보다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스스로 돈을 걸고 실천해서 이뤄내는 ‘습관형성 플랫폼 챌린저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특히 MZ세대에서 ‘돈으로 의지를 사는 어플’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비로 1만 원 이상을 내고 ‘1만 보 걷기’,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등 자신이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 관련 미션에 참가하고, 실행을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목표 달성률이 85%가 안 되면 참가비 일부를 잃게 되고, 100%를 달성하면 참가비 환급과 함께 추가 상금을 제공받는다.

### 운동서비스 앱 ‘아핏 사이클’

야외나 헬스장 등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홈트레이닝 서비스다. ‘태블릿PC 달린 가정용 사이클’과 세계 라이딩 명소에서 지인들과 가상 사이클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사이클 앱’ 구독권을 판매한다. 앱에 접속해 자전거를 탈 때마다 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준다. 출석·미션 보상을 받고 20분쯤 타면 700마일리지가 쌓인다. 한 달 최대 지급액은 2만 점. 운동하며 모은 마일리지로 카페, 상품권, 한우 등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의 개발사는 금전적 보상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 9배 더 많이 운동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동기부여 시스템을 만들었다. **SPORTS1**



# 건강한 일상을 여는 습관! 대한체육회 블로그 노크하기

## SPORTS FOR ALL, 체육인 IN터뷰

글. 편집실

우리나라 체육계의 다양한 소식과  
생활 속 건강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해주는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blog.naver.com/  
sports\_7330). 하루 한 번 방문은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체육회 블로그의 인기 콘텐츠를  
함께 만나볼까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운동은?

‘SPORTS FOR ALL’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밤샘 작업 후 턱까지 내려온 다크서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운동 후 통증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리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운동법과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대한체육회 블로그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세요.  
‘SPORTS FOR ALL’ 카테고리에서는 다양한 연령에 따른 상황별 운동법과  
건강 관리 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건강을 테마로 한 여행지 소개,  
운동 상식 바로 잡기 등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럼, 자신에게 꼭 맞는 운동을 찾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을 실천해볼까요.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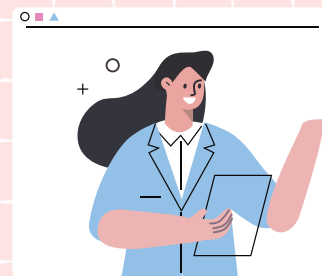




###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모든 것! '체육인 IN터뷰'를 통해 팬심을 채워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는 어떻게 운동을 시작했을까?  
운동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선수만의 운동 노하우는 무엇일까?  
스포츠와 선수들에게 진심인 당신!

대한체육회 블로그에는 그런 스포츠 팬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스타부터 스포츠 유망주들의 진솔하고 가슴 따뜻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체육인 IN터뷰'입니다. 재미있게 읽다 보면 선수에 대한 궁금증도 풀리고, 다양한 운동 노하우도 배울 수 있죠. 이 밖에도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실천하며 친목도 다지고, 건강도 챙기는 동호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SPORTS1**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 울퉁불퉁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 공의 모양과 공기역학

글: 편집실

구기종목에서 사용하는 공은 경기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그중 공의 모양은 속도, 비거리와 관련이 깊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동그란 모양' 안에 첨단과학이 숨어 있는 것이다. 공의 모양과 공기역학에 대해 알아보자.



### 공에 있는 흠집, 다 이유가 있었네!

우리가 몸을 단련하거나 여가활동 시, 또는 친목을 다지거나 생활 속 자투리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 하는 활동 중에는 공놀이가 많다. 그런데 공은 종목마다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왜 공은 종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

스포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공의 모양, 무게, 소재 등을 연구해왔다. 그 결과 공의 모양과 크기 등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처음 골프공의 모양은 공기저항이 가장 적은 완전한 구 형태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선수들은 골프를 치다가 공에 상처가 나면 오히려 새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골프공 제조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오목한 홈이 있는 골프공을 만들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골프공의 평균 비거리는 27m 이상 늘었다고 한다.

오늘날 구기종목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은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매듭이나 보풀, 홈 등이 있다. 왜 그럴까? 정답은 공이 날아갈 때 생기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기 저항에는 두 가지 중





류가 있다. 공의 앞 뒤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형상 저항’과 공기와 공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 저항’이다. 그중 공에 작용하는 저항은 대부분 형상 저항이다. 따라서 공이 최대한 멀리 날아가려면 형상 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야구공의 솔기, 테니스공의 보풀처럼 표면을 거칠게 하는 이유는 형상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거친 표면이 공 주위의 공기 흐름을 매끄럽게 해 비거리를 늘려주기 때문이다.

## #1

**골프공 ‘딴플’의 숨은 비밀**

골프는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과의 싸움이다. 공을 멀리 날려 보내려면 공기 저항을 뚫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버 역시 더 강하게 공을 치려면 헤드가 공기를 잘 통과해야 한다.

골퍼가 골프공 아래 부분을 때리면 공은 역회전을 하며 날아간다. 이때 역회전하는 공의 아래쪽 공기는 마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고, 공 위쪽 공기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공이 위로 밀어올려진다. 딴플(Dimple)은 야구공의 실밥처럼 마찰과 압력을 증가시켜 공의 비거리 및 체공시간을 늘어나게 한다. 이 때문에 골프공에 딴플이 없으면 비거리는 20%가량 감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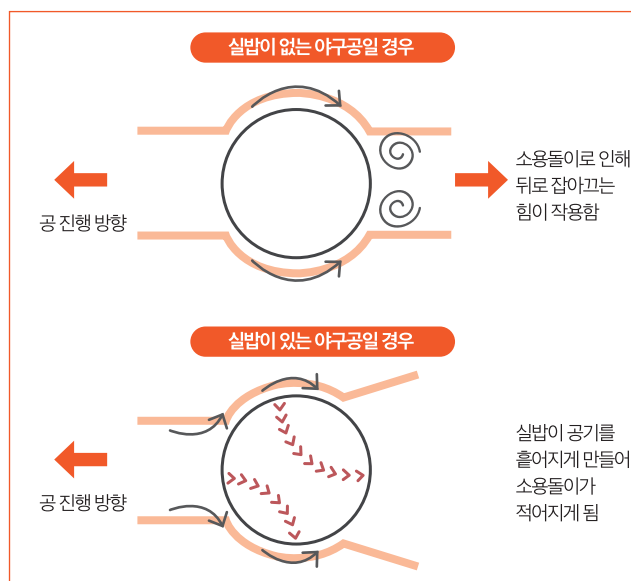
딴플은 골프공 표면에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음푹 패인 홈을 말하는데 제조사마다 그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다. 딴플의 모양과 크기는 공의 탄도와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제조사가 딴플의 개발과 디자인에 큰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특허 출원하고 있다.

## #2

**야구공 ‘108개 실밥’의 비밀**

우리가 아는 야구공은 모두 흰색 구형에 빨간 실밥이 양쪽으로 박힌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빨간 실밥은 정확히 108개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실밥이 공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다. 이유는 뭘까? 만약 실밥이 없으면 공 정면의 공기 저항은 줄어들지만, 공의 후방에 공기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 소용돌이는 공을 뒤쪽으로 잡아끄는데 이 때문에 저항이 커져 속도가 떨어진다. 이때 실밥이 큰 역할을 한다. 뒤쪽으로 가는 공기들이 실밥에 부딪혀 흩어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공 뒤쪽에 생기는 소용돌이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투수들이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것도 이 빨간 실밥 덕분이다. 날아가는 공이 한쪽으로 휘는 이유는 공을 둘러싼 공기의 압력 차 때문이다. 투수들은 실밥을 손톱으로 찍거나 굵는 방식으로 야구공에 회전력을 실어 던진다. 108개의 빨간 실밥 중 무엇을, 어떻게, 잡고 던지느냐에 따라 공의 회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의 한쪽 방향에 회전력을 가하면 공기의 저항을 받아 압력이 높아지고, 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휘게 된다. **SPORTS1**

**108개 실밥의 비밀 공의 속도(구속)**

# 짜릿해, 늘 새로워! 국내 익스트림 스포츠 명소

글. 편집실 자료 제공. 상주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하루하루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안녕!  
짜릿한 스틸과 재미가 가득한 익스트림 스포츠 명소 두 곳을 소개한다.



## 낙동강 물길 따라 만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묘미

###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 '경상도'라 불렸을 만큼 한때 영남 내륙의 번창한 도시였다.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덕에 일 년 내내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상주보와 낙단보 건설 뒤 거대한 인공호수가 생겨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상주보 수상레저센터는 계류장 4개에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등 무동력 장비와 유람용 모터보트 등의 레저 장비를 갖췄다. 주변에는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자전거박물관 등이 조성되어 가족 여행지로도 안성맞춤이다.

낙단보수상레저센터는 카약, 딩기요트 등의 무동력 보트와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시,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의 동력장비도 갖추고 있다. 또한 일반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시험이나 실기 없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2급 조종면허를 딸 수 있다.



#### 상주보수상레저센터

**위치** 경북 상주시 용마로 366

**문의** 054-500-7112

#### 낙단보수상레저센터

**위치**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1길 108

**문의** 070-4820-3875



#### 소래습지생태공원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55

**문의** 032-435-7076

####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씨스카이월드 짚라인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하나개로 140

**문의** 032-746-6886



## 하늘길과 바닷길 위를 날아오르는 짜릿함!

### 인천광역시

일출과 일몰, 하늘길과 바닷길을 품은 도시 인천광역시의 이미지는 오묘하고 신비롭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떠남과 당도의 순간이 포개지는 이곳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지이다. 최근에는 특유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과거 폐염전 지대를 습지생물 군락지로 복원한 공원이다. 다양한 생물군과 빨간 풍차, 청명한 하늘이 어우러지며 한 폭의 명화 같은 풍경을 빚어낸다. 아름다운 풍경 때문인지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소문이 자자하다.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은 줄 하나에 의지해 빠른 속도로 바람을 가르며 활공하는 짚라인 명소로 꼽힌다. 별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용기와 결단만 있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SPORTS1**



2022학년도 6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도전! 나도 Sporter**  
스포츠와 일반상식 영역

〈스포츠험원〉 6월호는 잘 읽었나요?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KSOC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스포츠험원〉 6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 1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 ① 6월 1일                      ② 6월 6일  
③ 6월 16일                  ④ 6월 25일

- 2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다수의 다관왕이 탄생했습니다. 그중 신희제 선수는 6관왕에 오르며 최다관왕에 올랐는데요. 신희제 선수가 다관왕을 차지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 ① 수영    ② 기계체조  
③ 롤러   ④ 양궁



## 2022학년도 6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3 야구공을 자세히 보면 붉은색 실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밥은 공이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게 돕는데요. 모든 야구공의 실밥 개수는 똑같다고 합니다. 모두 몇 개일까요?

- ① 108개                          ② 250개  
③ 360개                          ④ 500개

4 1990년대 초 유럽과 하와이 등지에서 파도가 일지 않는 날에도 서핑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레저스포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카이트서핑                      ② 무동력서핑  
③ 수상스키                        ④ 썰라인

## 문제 해결

**TIP**

## 1번 히트

## 제정 1년 뒤 시행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된 건 2021년 6월 15일입니다.

## 2번 힌트

## 도구를 이용한 체조

안마, 링, 도마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정답 제출하기

Q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7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6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7월 8일)

## 5월호 정답자

이\*결(2124), 한\*규(6396), 김\*(0843), 박\*재(0415), 이\*연(9721),  
김\*중(6746), 김\*근(2682), 박\*진(6572), 박\*라(4199), 김\*아(6542)

# SPORTS1 NEWS

## 대한체육회

###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

대한체육회가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이란 스포츠를 통해 이 시대에 귀감이 되고, 사회통합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인으로, 대한체육회가 2011년부터 선정해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탁월한 업적으로 국위선양 및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선수나 스포츠 공헌자(지도자·스포츠행정가·스포츠언론인·스포츠외교가 등)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스포츠영웅의 자격 대상은 1. 스포츠 분야의 탁월한 업적으로 국위선양 및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자, 2. 모든 스포츠인들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포츠인, 3. 청소년 및 현역선수들의 역할모델 기여도가 높은 자, 4. 선수는 공식 은퇴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인사, 스포츠 공헌자는 20년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단 만 60세 이전에 사망한 인사는 예외)다.

2022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은 6월 27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관련 홈페이지(<https://www.sports.or.kr/hero/main>)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200명에게는 추천을 통해 음료 기프트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 역대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연도	국립묘지	안(이)장연도	성명
2011년	국립대전현충원	2002년	故 손기정
		2019년	故 김성집
2013년	국립서울현충원	2019년	故 서윤복
2014년	국립대전현충원	2006년	故 민관식
2018년		2020년	故 김 일
2020년		2021년	故 조오련

### 진천선수촌서 '국가대표 가왕선발전' 개최



대한체육회는 5월 26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태극광장에서 '제1회 국가대표 가왕선발전'을 개최했다.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연기 등으로 저하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 진작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국가대표 선수 1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600여 명의 동료 앞에서 숨겨둔 끼를 발산했으며, 1위는 레슬링 노영훈 선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역도 김수현, 3위는 컬링 전재익, 인기상은 스쿼시 양연수 선수가 받았다.

한편, 뮤지컬 배우인 유건우, 양정현, 가수 디에이드 등의 축하공연과 브레이킹 국가대표팀의 화려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이어졌다.

아시안게임 연기에도 훈련에만 매진하던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날 행사가 종료된 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내일부터 더 힘을 내서 훈련할 것"이라며 "선수촌이 선수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 부패·공익신고 실효성 강화 캠페인 실시





2022 JUNE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부패·공익신고 운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 일환으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대한체육회장과 함께하는 ‘한번에 배우는’ 청렴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해 스포츠 승부조작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펼쳤다. 청렴플로깅(Plogging,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는 이기흥 회장과 학생선수 및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등 160여 명이 참가했다. 대한체육회는 참가자들과 구미 시민운동장 일대에서 환경정화 플로깅 활동을 함으로써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인 청렴 문화 참여를 유도해 청렴실천 의지를 확산했다. 또한 대회기간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해 제도 인식 여부에 대한 설문 응답을 통해 누구든 승부조작과 관련한 부패·공익신고가 언제나 가능함을 안내했다.

### 생활체육지도자 대면 직무교육 실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전국 228개 사군·구체육회 소속 2,800명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행되던 교육이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국 4개 권역 교육장(경기 가평, 충북 제천, 전남 화순, 경북 경주)에서 5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12회차에 걸쳐 개최된다.

매년 실시되는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은 지역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전문성 및 지도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낸 생

활체육지도자를 격려하고 구성원 간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은 매 회차 200명 내외가 참여한다. 변화된 환경 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 지도 동작 개발을 위한 실기수업, 안전한 지도 활동을 위한 사례학습, 운동처방 및 트레이닝방법론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서·산간벽지 초등학교 대상 선수촌 체험 실시



대한체육회는 6월 3일부터 도서·산간벽지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도서·산간벽지 유소년 대상 선수촌 체험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문체육시설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선수촌 견학, 가상현실(VR) 스포츠와 선수식당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날인 3일엔 강원도 폐광지역의 유소년 총 13명이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다양한 훈련 시설을 탐방하고 선수식당을 체험했다. 또 VR 스포츠, 포토타트 사진촬영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선수촌 체험을 희망하는 도서·산간벽지 지역 초등학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서·산간벽지 대상학교 명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서·산간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PORTS1 NEWS

## 시도체육회

### 전라북도체육회

####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참여 학교 모집

전라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초·중·고 학교운동부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학교운동부에 과학적 훈련용 기구를 지원해 훈련 여건을 개선, 우수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은 올림픽 종목 또는 기초 종목, 비인기 종목 위주이며 선정될 경우 1개 운동부당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각종 훈련 용품이 지원된다. 특히 체지방 측정기와 악력계, 전신 반응 측정기, 사이드스텝 측정기 등 과학적 훈련 기기가 지원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체육회 영재복지과 (063-250-8321)로 하면 된다.

### 전라남도체육회

#### 목포해양대 ‘해양스포츠단’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체육회와 목포해양대학교가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5월 7일,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실에서 최기동 회장직무대행,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김지현 해양스포츠센터장을 비롯한 해양스포츠단 지도자 및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교류 및 연구개발 등 교육 협력기관으로서의 지원, 양 기관의 사업 및 교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체육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체육회는 4월 8일 창단식을 가진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 선수단에 창단지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 충청북도체육회

#### 2022 스포츠버스 운영 시작



충청북도체육회가 5월 25일 과산 칠성중에서 대한체육회 기금지원사업인 ‘2022 스포츠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평소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스포츠버스 내부에서 체력측정·스포츠게임존(VR)을 체험하는 ‘움직이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작은운동회’를 열어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축제의 장을 제공한다.

올해 충청북도에선 3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두 번째는 10월 6일 보은군 산외초, 세 번째는 11월 8일 단양군 영춘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체육회

#### 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 2022 JUNE

## 시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는 6월 8일 사무처 임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성평등 온(ON)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이자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안명자 원장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하반기에는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무처 내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고충상담원 제도를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예방조치에 나서고 있다.

### 강원도체육회

#### '2022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강원도체육회는 5월 1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축구장에서 '2022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선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선수와 감독을 비롯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체육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8종목) 및 스포츠과학센터 전 직원은 족구와 제기차기, 줄넘기, 2인삼각계주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경상남도체육회

#### 경남스포츠과학센터 유치 확정

경상남도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공모 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는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제공되어왔던 스포츠

과학지원 서비스를 지방의 전문체육 선수들에게도 제공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경상남도체육회가 운영하게 되는 경남스포츠과학센터는 도내 전문체육 선수(학생·일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심리검사·상담, 경기기술 분석, 스포츠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스포츠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남스포츠과학센터는 향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과학 측정기자재 7억여 원과 매년 3억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경상남도체육회는 센터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 5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올 9월 개소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체육회

#### 안양대 운동부 창단지원금 전달



인천광역시체육회가 5월 25일 안양대학교에 운동부 창단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운동부 창단지원금 전달식에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이규생 회장과 안양대 박노준 총장 등 인천시체육회와 안양대 스포츠지도학과와 체육학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운동부 창단지원금 전달식은 안양대와 인천시체육회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학교 체육발전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으며, 운동부 창단지원금 1억 5,000만 원은 안양대 인천 강화캠퍼스 내 훈련시설을 증개축하는 데 사용된다.

안양대는 올해 인천 강화캠퍼스에 스포츠지도학과가 신설되면서 지난 4월 역도부를 가창단했고, 2023학년도에는 체육학과를 추가로 신설해 2개 과에서 검도부와 골프부, 수영부, 유도부, 태권도부를 포함한 총 6개 종목의 체육특기자를 선발한다.



# SPORTS1 NEWS

## 시도체육회

### 대구광역시체육회 비수도권 최초 스포츠인재 아카데미 개강



대구광역시체육회는 5월 16일 대구체육복지센터에서 대구 체육인을 위한 '대구 스포츠인재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행사는 지역의 우수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과 대구 체육인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리더, 영상촬영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구 체육인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체육인 취업 기회 창출을 위한 스포츠전문가 과정, 특별교육 과정, 스포츠재교육 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체육회는 향후 대구 시민들을 위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및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대구 체육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아카데미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체육회 서울과 스포츠 우호교류

광주광역시체육회는 6월 9~10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야구, 스쿼시, 파크골프 등 3개 종목 총 130여 명의 생활체육인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서울 스포츠 우호교류'를 개최했다. 광주-서울 스포츠 우호교류는 2016년 광주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문화관광 교류 협약의 일환인데, 스포츠는 2017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다. 스포츠와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해 도시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매년 초청과 파견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렸다. 이번 우호교류에서 서울은 임

직원 등 선수단 50여 명을 파견해 친선 경기뿐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며 도시 간 교류를 넓혀갔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2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6월 4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시의 자전거 동호인 1,700여 명이 참석했다. 2009년부터 열고 있는 2022 부산시민자전거대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시체육회에서 마련한 대회로 무동력 이동수단인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자전거 동호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가족 단위, 다양한 연령이 참가하고 순위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로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종주길을 반환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그동안 침체된 일상의 회복과 체육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2022 JUNE

## 회원종목단체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 12세 이하 이동진·18세 이하 최재호 감독 선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오는 7월 대만 타이난 세계청소년야구대회(12세 이하), 9월 미국 플로리다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에 출전할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이동진 의왕부곡초교 감독(12세 이하 대표팀)과 최재호 강릉고 감독(18세 이하 대표팀)을 선출했다.

이동진 감독은 2007년부터 경기 의왕부곡초에서 16년 동안 감독으로 일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LG 트윈스에서 프로 선수로 뛴 경험도 있다. 최재호 감독은 지난해 제30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 감독으로 선발돼 대표팀을 이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연기돼 이번에 공모에 재응시했다. 최재호 감독은 지난 2년 동안 황금사자기 왕중왕전 등 전국대회 3회 우승을 달성했으며 김진욱(롯데 자이언츠), 최지민(KIA 타이거즈) 등 현재 KBO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키워냈다. 감독 선발을 마무리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6월과 7월 중 대회별 코칭스태프와 선수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총 5차례 우승했다. 쿠바(11회), 미국(7회)에 이은 최다 우승 3위다.

## 대한당구협회

## 2022년 정기총회 개최



대한당구협회가 6월 4일, 2022년 정기총회를 중앙회 임원 및 17개 시도 회장,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당구협회가 당구발전을 위해 지난 4월 대한생활체육회 종목단체로 가입한

안전에 대해 토의 끝에 사후 인준했다. 아울러 기타 안전으로 상정된 '전국 당구동호인 중대 테이블 당구대회 개최' 건과 '중대 테이블 기증사업' 건도 통과됐다.

중대 테이블 당구대회는 당구협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당구협회는 이 대회에 전국에서 1,000여 명의 당구동호인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당구협회가 추진할 '숍인숍'(매장 안의 매장-shop in shop) 사업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 대한씨름협회

## 강릉단오제위원회와 씨름 경기장 영구 기증 협약



대한씨름협회는 6월 3일 강릉단오제위원회와 대국민 씨름 활성화를 위한 씨름 경기장 영구 기증에 관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이준희 경기운영본부장, 김동찬 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단오장사씨름대회 강릉시(강릉 단오제) 영구 개최, 씨름 경기장 영구 기증,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상호 노력 등이다.

한편,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내 야외 특설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는 대학생 장사 2명(한라급 단국대학교 송영천, 백두급 울산대학교 김민재)을 배출하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SPORTS1 NEWS

## 회원종목단체

### 대한컬링연맹

####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 개막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컬링 국가대표를 뽑는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가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렸다. 대한컬링연맹은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천선수촌에서 2022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를 진행했다. 모든 팀에 출전 자격을 주었던 지난 대회와 달리 올해는 상위권 팀에게만 출전권이 부여돼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졌다. 여자부에는 현 국가대표인 강릉시청 '팀 킴'(스킵 김은정)과 경기도청 '5G'(스킵 김은지), 춘천시청(스킵 하승연), 전북도청(스킵 신가영), 봉명고(스킵 김민서), 송현고(스킵 강보배), 의성여고 등 7개 팀이 출전했다. 남자부에는 현 국가대표 경북체육회를 비롯해 강원도청, 경일대학교, 경기도 컬링경기연맹, 서울시청, 의정부고, 의성고, 서울체고 등 8개 팀이 참가했다.

### 대한배구협회

#### 7월 챌린저컵 출전하는 국가대표 16명 발표



대한민국배구협회가 5월 10일, 2022 발리볼 챌린저컵에 출전하는 남자 배구 국가대표 선수 16명을 발표했다. 오는 7월 28~31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발리볼챌린저컵은 2023 발리볼네이션스리그 남자배구대회 출전권이 걸린 대회다. 한국, 터키, 카타르, 튀니지, 칠레, 쿠바 등 6개 나라가 출전을 확정했고, 올해 발리볼네이션스리그 강등팀과 2022 유럽 골든리그 우승팀을 포함해 8개 나라가 우승팀을 가린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세터 2명, 레프트 5명, 라이트 2명, 리베로 2명, 센터 5명으로 구성됐다. 한선수(대한항공)와 함께 황택의(KB손해보험)가 세터진을 이끈다. 리베로는 정민수(KB손해보험)와 박경민(현대캐피탈)이 책임진다. 대한항공 통합우승 멤버인 곽승석을 필드로 나경복(우리카드), 전광인(현대캐피탈), 황경민(삼성화재), 임성진(한국전력)이 레프트를 이끈다. 베테랑 신영석(한국전력)을 비롯해 최민호(현대캐피탈), 박진우(KB손보), 김재휘(우리카드), 박찬웅(한국전력)이 중앙 센터진을 형성하고, 허수봉(현대캐피탈)과 임동혁(대한항공)이 오른쪽 날개를 맡는다.





**2022. 5. 16. ~ 8. 1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 보조금부정신고센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  
더 건강하고 꾸준히 지속가능한 힘 **스포츠7330**

